

세계기도정보

[솔로몬제도] 아동 결혼 종식 위한 법 개정 착수...기독교 단체들 “환영”
 [리비아] 기독교인 11명, ‘이슬람 모독·기독교 전파’ 혐의로 중형
 [중국] 광저우 광푸교회, 1,000명에서 20명으로 축소...박해 속에도 신앙 지켜
 [라이베리아] 여성단체, 청년층 마약 대처 위해 ‘국가 비상사태 선포 촉구’ 시위
 [우크라이나] 전쟁 속 우크라이나 아동에게 ‘안전과 희망’을 전하는 성경캠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 보도 사진 조작 의혹 제기...하마스의 식량약탈이 식량부족 원인
 [나이지리아] 박해받는 기독교인 도왔던 나이지리아 남성, ‘징역 9년→무죄’
 [방글라데시] 정치 혼란 속 기독교인들 위기... “신앙 포기 협박 증가”
 [브라질] 재범률 0.35%의 기적...브라질 여성 교도소서 세족식·성찬식으로 복음 전파 결과
 [중동] “2030년까지 1억 명 복음화...스마트 전도의 도전과 비전”
 [영국] 웨일스성공회, 최초의 여성 동성애자 대주교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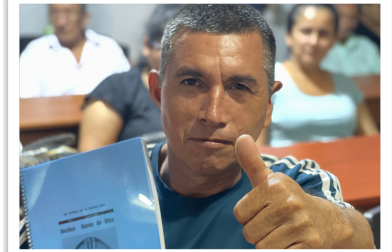
선교후원

현황

- ▶ 파 송 윤천석, 황나미(멕시코)
- ▶ 후 원 천준상(이숙영)-캄보디아, 김병렬(이미진)-말레이시아
 윤상혁(김나래)-인도네시아, 김상홍(조지현)-말레이시아
 우진호(김지현)-베트남, 윤요한(서사랑)-인도네시아,
 허수성(허인영)-태국
- ▶ 개척교회 부르심의교회(정연우목사), 경남교회(한덕숙전도사),
 물댄동산교회(김일석목사), 행복교회(정용수목사)
 보물상자, 어린이전도협회
- ▶ 기 관 해피가정사역연구소(서상복소장), 남부산동노회자립위원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이단대책), 위컴스, 어린이전도협회(서
 부산), 셀네트워크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행복한교회

담임목사 **김 성 철**
 47506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76
 T. 051-504-1128 F.051-504-1187



2025. 8
멕시코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부산행복한교회

바다를 넘어..

윤천석, 황나미 선교사(멕시코/파송)

나를 북한으로 보내주세요.

8월 17일 주일, 정글 마을에서 안데스로 돌아오는 길에 에드와르 목사가 나와 함께 한다. 그는 과거 공산당 게릴라로 있다가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고 목사가 된 자다. 노동판에서 막노동하며 재정을 모으다가,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다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저 정글 끝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예배당을 세우는 일이 그의 사명이다. 늘 떠돌아다니는 삶, 과거 공산당 게릴라로 정글 곳곳을 돌아다녔던 그의 경험을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하고 계신다.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떠도는 그를 보며, 교단 관계자들은 불편해한다. 그러나 내가 그를 보증하며, 이제 교단 목사로 허입 과정에 있다. 사람을 바뀌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은 바뀐다. 사도행전 수업을 마치며, 그가 나에게 말한다: “목사님, 저를 북한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먼저 제가 기도로 북한에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 그러나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비 목사 사택 완성

코스타리카 비라인 하비 목사의 사택이 완공되었다. 사람들이 지어진 사택을 보며, “목사님, 맨션을 지으셨군요!”라고 놀린다고 한다. 기뻐하는 하비 목사와 사모를 보며 나도 덩달아 기쁘다. 오랜 기간 나무판자 집에서 지낸 그를 향한 하나님의 작은 보상이라 확신한다. 이제 예배당 건축이 남았다. 페루로 마지막 사역을 떠나기 전 카를로스 목사와 건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건축을 위해 자세한 건축 도면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구청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확신한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도움이며 힘이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

8월 10일 주일, 작년부터 시작된 페루 장로교 교단을 중심으로 한 안데스 산맥 지역 및 아마존 지역 현지 목회자 배출 사역의 1차 마무리를 위해 아내랑 페루로 들어갔다. 안데스산맥에서부터 아마존 정글까지 많은 예배당이 지어져 있지만, 대부분 목회자가 없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게 교단의 요청에 응해 시작한 사역, 총회장의 마음과 달리 반응 없는 현지 리더들의 모습을 보며, 안타깝게도 이곳 사역이 지속되지 못할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안데스산맥 지역에 세 곳, 그리고 정글 지역에 한 곳, 이렇게 총 네 곳에서 목회자 배출 프로젝트가 올 하반기부터 진행되게 되었다. 비록 나는 이곳에 집중할 수 없지만, 나와 제자들과 현지 리더들이 이 일을 이어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로 사도행전을 학생들과 공부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나도 고백한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다. 선교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한 걸음의 순종임을 가르치며 나 스스로에게 또 이 내용을 각인시킨다.

8월 16일 토요일, 졸업식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사역하는 지역으로 들어갔다. 정글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나의 방문은 지역 교회에 큰 의미이며 위로이다. 이곳은 최근 퓨마가 나타나 개 4마리가 사라졌다고 한다. 지역 교회들이 나의 마지막 설교를 듣기 위해 함께 모였다. 나는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며 뜨겁게 예배드렸다. 픽업트럭 트렁크에 앉아 돌아오는 길,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흔들림이 무색하게, 하늘의 은하수가 너무 아름답다. 수많은 은하수를 보았지만, 저 밀림 속에서 바라보는 은하수가 가장 눈부시다. 이제까지 다녔던 아마존 정글 속 교회들, 안데스산맥에 숨은 많은 성도들 그리고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지 몰라 나뉜 도시 교회들... 그 모든 지난 시간이 갑자기 몰려들어오듯 나의 가슴에 메아리친다.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았던 시간, 모든 것을 끝내고 나니 가슴에 큰 여운으로 남는다. 평생 본 적 없는 은하수로 나를 위로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하나님, 제가 당신께 목숨 다해 충성했습니다. 당신의 선교에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다녔던 길 위를 걸을 제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 주소서.”

스승 같은 제자

8월 1일 금요일, 메리다 미겔 목사가 내년 1월에 예정된 전도 집회를 먼저 자신의 교회에 적용해서 실행하는 날이다. 나는 수시로 그와 통화하며 기도문을 적어 이 일에 참여하는 교인들에게 보냈다. 짧은 나의 기도문이지만, 현지인들은 이 기도문으로 인해 힘과 위로를 받는다. 글 없는 책으로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 미겔 교회에서 19명의 교사가 다시 훈련을 받았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아이디어가 현지인들에게서 나온다. 남과 북을 중심으로 큰 놀이기구를 배치하고, 좌우로 성구 암송 반과 나이별 놀이를 배치했다. 그리고 좌우 모두에 글 없는 책으로 일대일로 복음을 제시하도록 했다. 작은 마을,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을 영접할지 나도 궁금했다. 그러나 나의 걱정과 달리 이날 81명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미겔 목사가 나에게 말한다: “목사님,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참석한 교사들이 치아파스 전도 사역에도 모두 함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8월 기도제목:

1. 코스타리카 비라인 행복한 교회건축에 필요한 재정 모금 및 공사가 순조롭게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2. 우리가 섬기고 있는 쿠바 목회자들이 점점 힘든 상황속에서도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3. 멕시코 치아파스 전도 집회 준비가 많은 돕는 자들과 연합하는 교회가 더 늘어나 은혜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